

첨단 기술 한자리에...미래 스마트농업 모델 제시

2021국제농업박람회 가보니

QR출입증 실시간 동선 확인 등 K-방역 '촘촘' 생육 정보 수집·분석 '디지털 농업 로봇' 첫선 수출상담회 병행 농산업 비즈니스장 역할 특출

나주시 산포면 산림자원연구소를 지나면 왼편에 2021국제농업박람회장이 보인다. 휴일인 지난 23일 오후 화창한 날씨 속에 국제농업박람회를 찾은 인파가 물리면서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박람회장 입구에 매표소가 보인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관람객은 입장료를 할인받고 미리 발급받은 QR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지난 21일 개막한 2021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미래를 꿈꾸는 스마트농업'을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11일 간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장은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구성됐다. ▲미래농업존(스마트농업 1·2관) ▲치유체험존(치유체험관, 힐링정원, 치유동물농장) ▲농식품홍보존(농식품관, 농기자재관, 농기계시연장) 등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래 스마트 농업 기술을 교류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바이어와 농업인, 청년, 이들이 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안전 관람에 초점을 맞췄다. QR출입증으로 관람객 동선 파악이 가능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장에 앞서 관람객들은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QR출입증 체크, 체온 측정, 손

소독을 실시했다. 입구에는 관람객 밀집 최소화를 위해 수용 인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적정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AI 퍼플카운팅 시스템을 운영했다. 시간대 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잠시 대기하도록 했다. 촘촘한 'K-방역'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미래농업존을 만날 수 있다. 바닥의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면 동선이 쉽게 파악된다. 또 곳곳에 배치된 안내문을 통해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미래 농업 정보를 얻으려는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올해 박람회장에 한층 더 고도화된 미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 벼농사는 AI 드론을 활용해 종자 파종, 병해충 방제는 물론, 센서와 영상 장비, 스마트 통신 시설을 활용해 물 관리와 생육 진단까지 할 수 있다. 자율주행 이앙기와 트랙터로 작업 효율도 극대화된다.

벼농사 뿐만 아니라 콩, 잡곡, 마늘, 양파, 고추 등 밭작물 역시 모든 영농 과정이 기계화된다. 채소 정식기, 수확기, 도정기 등 최신 기계가 개발·보급되면서 스마트농업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

기상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농기계 시뮬레이터 체험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국제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농업 관련 경운기와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농업의 핵심 스마트 기상장비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바람, 비, 햇빛 등 환경 정보를 감지해 데이터를 무선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병해충 발생 위험 등 기후변화에 따른 비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디지털 농업용 로봇'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자, 이를 인식한 농업용 로봇이 잘 익은 토마토를 짚싸게 잘라냈다. 다른 칸에서는 농업용 로봇이 수확한 작물이 담긴 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디지털 로봇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과 이미지 센서를 결합해 작물의 세부기관을 인식하고 멜론, 토마토 등 과채류 생육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는 수확 로봇, 온실용 이송 로봇 등이 전시됐다.

이 밖에도 관람객들은 트랙터, 경운기, 드론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체험했다.

스마트농업 2관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장인 수출상담회가 활발히 펼쳐졌다. 20개 국 80개 사 해외 바이어가 대거 참가해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했다.

미래농업존을 지나면 치유체험존이 나온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치유동물농장은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

게 인기 만점이다. 강아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자연 속에서 동물과 직접 교감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눈에 띈다.

평소 보기 힘든 각종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미어캣, 라콘, 타조, 알파카, 당나귀, 무플런 등 양서류·파충류 체험장, 영무새 체험장도 있다.

농식품홍보존 내 농기자재관, 농기계 시연장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진화한 농업기술과 농기계 3종을 시연했다. 농식품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전남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박람회를 찾은 화순지역 한 농업인은 "코로나19로 박람회를 찾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철저한 방역 시스템 덕에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광주에서 온 한 관람객은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지속 개발돼 놀랍다"며 "스마트농업 시대가 시작됐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한로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전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농산업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국제농업박람회장은 31일까지 11일간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변은진기자

“전남에 본적 둔 3·1운동 미서훈자 찾습니다”

道, 내달 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누리집 통해 접수

독립운동 유가족의 고령화로 일제강점기 알려지지 않은 항일운동의 역사 확인이 시급한 가운데 전남도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찾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남에 본적을 두고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다. 유족이나 후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접속한 후 분야별 정보 중 '도민복지' 분야로 들어가 '3·1운동 미서훈자 신청'에서 하면 된다.

적극적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도와 시·군·누리집, 각종 소식지, 반성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미서훈자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개별 신청과 별도로 일제강점기 문헌,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 제적부 등을 조사한다.

발굴한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 확인, 현지 조사 등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독립운동 유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미서훈자의 조속한 발굴을 위해, 2022년에는 1895년 한말의병부터 1945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

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연구원(061-931-9415)이나 전남도 사회복지과(061-286-5741)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독립운동에 함께한 도민들은 많으나 실제 서훈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국가기록원 집행원부에 따르면 도내 의병 및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는 2천여명에 이른다.

우훈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국가기록원 자료 등 사료를 통해 미서훈 대상자를 발굴해 검증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유족과 후손은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전남사회서비스원-노조 '인권경영헌장' 선포

전남사회서비스원은 24일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고 사람 중심 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서비스원 인권경영 헌장’을 대내외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을 기준으로 구체적 실천을 위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신현숙 원장은 “인권경영 헌장 선포는 시대적 과제이자 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선언문의 내용을 잘 이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개원한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청렴시책 평가 우수기관 인증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21년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모두 1위를 달성하면서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임후성기자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

10월 29일(금) 오후 3시 광주YMCA 2층 무진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시민들, 통신문인 뉴스1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주YMCA에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 주민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 광주의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의 육성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토론회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조발표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 서순복 조선대 교수,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 토론 : △ 사회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 △ 토론자 ▲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일웅 광주시자치행정국장
 - ▲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 주최 | ◀ 광주매일신문, 품자주자시민들, 뉴스1 | 주관 | 품자주자시민들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